



주의 은총과 연합으로 부흥케 하소서

스가랴 11:1-17

- ¹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²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으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엷드러졌도다
³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으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람이 쓰러졌음으로다
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때를 먹이라
⁵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⁶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⁷ 내가 잡혀 죽을 양 때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때를 먹일새
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⁹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¹⁰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¹¹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¹²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삷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삷을 삼은지라
¹³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삷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¹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¹⁵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¹⁶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¹⁷ 화 있을진저 양 때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서론: 바벨론 포로중에 태어난 스가랴가 조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국

12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재건을 격려하며 절망중 소망의 메세지 전함

성전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장래의 부흥을 위함이다.

무너진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스가랴의 뜻)

I. 스가랴 11:1-3

레바논에서 바산, 요단의 자랑하던 것들이 황무하게 되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끝의 모습이다.

오늘 세계 최강국이라 자랑하던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400년 전 청교도의 믿음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 미국이 인종차별 남북, 한국이 남북 분열

이유가 무엇인가? 스가랴의 명 진단이 시작된다

II. 스가랴 11:4-9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은혜 와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인도하셨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6절, 9절: '내버려두셨다.' '유기 하셨다' 코로나는 유기하심결과

8절: 한달 동안 세 목자 제거하였다 (바벨론/메대/바사)

16, 17절: 양 떼 버린 못된 목자 (로마)영적으로 타락한 샅꾼목자

유기하심: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셨다.

눅 15장: 아버지를 떠난 탕자/속 썩이는 자식은 부모가 '내버려 둔다'

롬 1:24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롬 1:26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LGBTQ 순리를 역리로

롬 1:28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삶

독일 헬무트 슈미트 수상: 미국의 자유는 방종, 속 삶은 지옥 같은 삶이다

파스칼 '팡세': 정욕대로 사는 삶은 자유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 필요함

그래서 '내버려 두심,' '유기 하심'은 막장에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신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다.

III. 속 11:12-13

스가랴의 값이 은 30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가 은 30

마 27:10 가룟유다, 후회하며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줌

대제사장: 성전에 둘 수 없는 피값: 던져진 발: 피발

참된 목자: 은 30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은총과 연합'의 회복임

Con: 대하 7:14 마치 내 죄인 듯 회개- '은총과 연합'이 다시 흐르게!